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동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신비의 라오스 6일
 6월7일, 14일, 21일, 28일 **899,000원**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 (02)725-7595 / FAX: (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6월 1일(음력4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528호

스리랑카 '종교자유 법안' 제정해 비윤리적 개종 유도 막아

중국 2008년 불자 5억명 목표 몽골 토지제공 등 사찰에 혜택

불교로 '정체성' 찾기 모색

전통문화 보호 정책 강화... 법 제정에 각종 지원도

경제 개발을 통한 국력 신장과 국민복지 향상이 시급한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자기 정체성'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 지키기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정책적으로 전통 문화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중국 스리랑카 몽골 등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이런 활동의 기저에는 한국 등 개신교 단체의 부분별한 아시아 지역 선교도 한몫하고 있다. 전통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리랑카. 국민 70%가 불교신자인 스리랑카는 최근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 공동체를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윤리적인 개종 유도행위를 금지하는 '종교자유법안(Freedom of Religion Act)'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종교문제가 개인과 집단 간의 격렬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자금력을 앞세운 개신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비자야시리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이 법안은 속임수나 갑작적인 방법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종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중국. 중국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전통문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불교협회 한국담당 보정 스님은

"현재 중국 내 불자 수는 2억명을 넘어선다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2008년까지 불자 인구를 4-5억 명, 스님 숫자를 3만 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중국정부는 기독교 문명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불교문명의 중심 국가로 중국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의 음성적인 선교행위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교조례를 올 3월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 조례를 통해 합법적인 단체의 종교 활동은 적극 장려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인구의 90%가 불자인 몽골은 전통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30년대 사회주의의 탄압으로 폐말되는 수준에 이르렀던 몽골 전통문화가 90년대 민주화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몽골 스님의 숫자는 3천명으로 늘어났으며, 140여곳의 사찰이 전국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엔트바야르 前총리가 5월 23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같은 날 열린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몽골 정부가 전통문화 복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몽골 정부는 물질적인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례적으로 최근 몽골 스님들에게 수도 올란바토르 시내의 노른자위 땅을 대대적으로 불하하고 있다. 이곳에는 이미 타바사와 서비스센터, 박물관, 문화원, 갤러리,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다. 또 한국 고려사에도 9천여 평의 땅을 불하해 한몽문화원을 건립하도록 후원하고 있다. 천태종, 불교

진흥원 등 한국을 비롯 각국의 불교 종단 및 단체, 사찰에도 토지 무상 불하를 통한 몽골정부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전통문화 복원 움직임과 관련해,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은 "아시아 국가들이 불교를 통해 전통 지키기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불교도 지나친 서구화로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 지키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중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법장 스님(왼쪽 앞에서 두번째)이 미국 조셉 디트라니 북핵대사(오른쪽 앞에서 두번째) 등에게 한반도 관계자들의 범명을 지어 직접 적어주고 있다. 사진=남동우 기자

"북핵문제 열쇠는 평화" 강조

미국불교순방 나선 법장 스님, NSC 선임보좌관 등 만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국국민들의 염원이다." 아시아 국가의 전통문화 복원 움직임과 관련해,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은 "아시아 국가들이 불교를 통해 전통 지키기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한국불교도 지나친 서구화로 위기에 처한 전통문화 지키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중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현지시간 5월 25일 워싱턴DC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실에서 엘리엇 에이브람스(Elliott Abrams) NSC 선임보좌관과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NSC 아시아 담당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 스님은 "북한 체제붕괴를 꾀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향후 동북아 지역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에이브람스는 "한국은 화해, 교류 협력 등을 지향하는 정책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에서 이러한 양쪽의 균형을 잡는 협의를 하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장 스님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 북핵대사, 테드 오시어스(Ted Osius) 국무부 한국과장 대리, 스트럽(Straub) 국무부 동아태 수석차관보 대리 등 미국측 한반도 관계자들과 한식당 우육에서 함께한 오찬에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 설득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부시대통령과 국무장관도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적 통일과 관련한 친서를 디트라니 대사에게 전달했다. 법장 스님은 현지시간으로 5월 27일 뉴욕에서 하버드대학 종교학자 좌담회, 28일 뉴욕대법회, 29일 LA 대학에 참석한 뒤 30일 서레대학을 방문하고 6월 1일 귀국한다. 미국 워싱턴DC=남동우 기자

'서울 국제도서전'에 불서 전시

불출현 8년만에

불교계 출판사들이 펴낸 다양한 불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 18개 회원사의 도서 200여 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8년 만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외 출판사와 잡지사, 저작권 에이전시, 서점, 유통업체 등이 참석해 출판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와 독서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되는 도서전. 올해는 국내 126개사와 해외

20개국 166개사가 부스를 설치해 각자의 출판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창화 부회장(민족사 대표)은 "그동안 불교계 출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도서전에 참가하지 못했었는데, 불출협 출범을 계기로 다시 참가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많은 불자들이 도서전을 찾아 불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서전에서는 책 전시 외에도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전시와 금속활자의 제작과정 소개, 고인쇄 체험 코너, 작가 친필원고전 등 출판 관련 세미나도 개최된다. (02)735-5651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법보시' 용으로 적격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고성채(성채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티베트 연구가 김규현씨
 '역(逆), 왕오천축국전...'

북다뉴스에 연재시작
 5월 28일부터...14면에 인터뷰 기사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본지 오래되어서...

큰일났다! 주객이 바뀌었다

그림·조태호

도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데이콤은 조계종과 함께 통신통합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세상의 주인공인 당신의 모습 -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모두가 당신을 주목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맞추어진
 당신 중심의 새로운 세상, 데이콤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에서도!
 기업 인터넷통신의 최강자! 보라넷
 고품질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라넷

기업NW솔루션에서도!
 고품질 광대역 전용회선서비스 DLS, DLS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기반 기업NW 보라MVP

전화서비스에서도!
 집에서도,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002
 저렴한 요금에 다양한 혜택까지 데이콤시외전화

e-Biz에서도!
 Online Storage Service의 1인자 데이콤클라우드
 안전하고 편리한 대금결제대행서비스 eCredit

DA·COM
 www.dacom.net